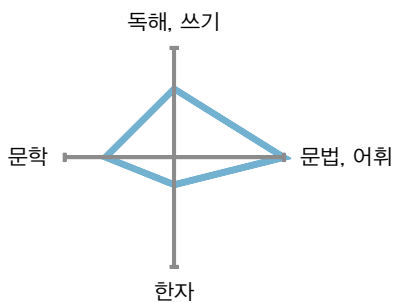


## 2017 서울시 9급 D책형 국어 총평 및 해설

수험생 여러분,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총평 및 해설을 올려 드립니다. 더 자세한 총평 및 해설 자료, 영상은 [지안합격예측서비스](#)에서 제공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017 지방직 9급 영역별 분석



| 영역    | 문항 수 |
|-------|------|
| 문법·어휘 | 8    |
| 독해·쓰기 | 5    |
| 문학    | 5    |
| 한자    | 2    |

### 1. 총평

2017년도 지방직 시험에서는 문법과 어휘 8문항, 독해·쓰기 5문항, 문학 5문항, 한자 2문항이 출제되었다. 또한 시조와 한시의 두 문항은 한자와도 연결 할 수 있다.

전체적으로 시험 문제에 한자가 많이 출제된 것처럼 느끼게 하였다. 이러한 점 때문에 수험생들은 시험의 난도가 더 높게 느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.

특히 문법은 어휘 중심으로 출제되었고 문법 이론은 평이한 높임법이 출제되었다. 문법에 관한 기본 이론을 체계적으로 구조화시키되, 고유어, 한자어 등의 어휘를 꾸준히 암기해야 할 것이다. 또한 이번 시험에서의 특이한 점은 예년의 지방직 기출 문제와는 달리 지문의 길이가 많이 길어졌다는 점이다. 따라서 평상시에 긴 지문의 독해를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.

예전의 시험 경향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, 국어의 모든 영역(문법, 비문학, 문학, 어휘)을 겸손하게 대하고 어렵게 공부한다면, 실전에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.

### 「서울시 9급 해설 영상관련 안내」

서울시 9급 기출 해설이 영상으로도 촬영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안공무원학원 홈페이지의 배너를 통해서 접속 가능합니다.

## 「2018년 시험대비 국어 기본이론반 안내」

### 7월 개강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강의명  | 2018 시험대비 공무원9급 윤서영 국어 기본이론반(학원실강) |
| 강의시간 | 지안공무원학원 홈페이지 참고                    |

## 2. 해설

### 문 1. <정답> ①

#### <해설>

퍼렇다 : ㅎ불규칙 활용을 하여 <퍼렇 +어서→ 퍼레서 (ㅎ 탈락 후 ‘어서’가 ‘에서’로 변함)

#### <오답풀이>

- ② 또아리(X) → 따리(O) : 표준어 규정 14항 -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,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.
- ③ 머릿말(X) → 머리말(O):순우리말 ‘머리’와 ‘말’이 합쳐진 합성어이지만, [머리말]과 같이 사잇소리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.
- ④ 잠귀야(X) → 잠가야(O) : 기본형‘잠그다’(어간 ‘잠그-’)에 어미‘-아야’가 결합한 형태로서 ‘-탈락’이 이루어지므로 ‘잠가야’가 된다.

### 문 2. <정답> ③

#### <해설>

말길이 되다 : 남에게 소개하는 의논의 길이 트이다.

### 문 3. <정답> ④

#### <해설>

바늘 한 쌈 : 24개, 탕약 한 제 : 20첩, 오이나 가지 한 거리 : 50개  
 $24+20+50 = 94$  개

문 4. <정답> ④

<해설>

- ① 春雨(춘우) : 봄비, 화자의 쓸쓸함을 부각시키는 배경이다.
- ② 羅幕(나막) : 비단 장막
- ③ 屏風(병풍)
- ④ 杏花(행화) : 살구꽃 → 시적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임.

<허난설헌 - 봄비>

- 지은이 : 허난설헌(許蘭雪軒, 1563-1589) 조선 명종, 선조 때의 여류 시인. “홍길동전”의 지은이인 허균(許筠)의 누이. 일찍이 삼당시인(三唐詩人)의 한 사람인 이달(李達)에게서 시를 배웠다. 대표작으로 가사 작품인 “규원가(閨怨歌)”와 한시 “감우(感遇)”, “곡자(哭子)” 등이 있다.
- 갈래 : 한시. 오언절구
- 성격 : 애상적. 독백적. 서정적
- 어조 : 쓸쓸한 독백의 어조
- 표현 : 객관적 상관물을 사용한 표현이 돋보임
- 구성 : 선경후정
  - 1구(기) - 연못에 봄비가 내리는 쓸쓸한 정경
  - 2구(승) - 이른 봄의 추위가 외로움을 더함
  - 3구(전) - 시름에 잠긴 화자의 모습
  - 4구(결) - 허망하게 지나가는 젊은 날
- 제재 : 이른 봄의 쓸쓸한 정경
- 주제 : 규중 여인의 외로운 심사. 젊은 여인의 고독과 우수(憂愁), 규중 여인의 고독한 심사(心思), 젊은 날을 보내는 여인의 고독과 우수
- 출전 : <난설헌집(蘭雪軒集)>

문 5. <정답> ②

<오답풀이>

‘언치’는 말이나 소의 안장이나 길마에 까는 방석이다. 말에 이러한 깔개를 얹고 탄다는 것은 화자의 소박한 생활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격식을 갖추는 태도는 아니다.

<정철 - 재너머 성권릉>

- 지은이 - 정철(鄭澈 1536-1593) 조선 선조 때의 문신. 호는 송강(松江). 서인(西人)의 영수로 당쟁에 깊이 관여함.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고전 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음. 작품에는 “관동별곡”, “사미인곡”, “속미인곡” 등의 가사와 사설시조인 “장진주사(將進酒辭)” 그리고 “훈민가(訓民歌)”를 비롯한 시조 79수가 있음. 저서에는 <송강가사(松江歌辭)>, <송강집(松江集)>이 있음
- 갈래 - 평시조. 단시조. 정형시
- 율격 - 3(4)4조, 4음보
- 성격 - 전원한정가(田園閑情歌). 풍류적
- 표현 - 해학적 표현. 시상의 과감한 생략. 호방한 성격
- 제재 - 술과 벗
- 주제 - 전원 생활의 흥취(興趣)
- 출전 - 송강가사

문 6. <정답> ①

<해설>

- ㉠ 長廣舌(장광설) : 길 장, 넓을 광, 혀 설 →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.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.  
 ㉡ 流言蜚語(유언비어) : 흐를 유, 말솜 언, 바퀴 비, 말솜 어 →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.  
 ㉢ 變名(변명) : 변할 변, 이름 명 → 이름을 달리 바꿈

문 7. <정답> ④

<해설>

잠착하다 : ‘참척하다’의 원말로서, ‘한 가지 일에만 정신과 마음을 골똘하게 쓰다.’의 뜻이다.

<정지용 - 인동차>

- 정지용
- 갈래 : 서정시
- 성격 : 동양적, 관조적, 은일적, 도교적, 시각적
- 어조 : 고요하고 적막한 어조
- 주제 : 산중의 고요한 정경,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는 인내
- 특징 : 동양적 세계를 보여 주는 시로 각 연들은 동양 특유의 정신적 여백미, 간결성, 절제미가 담긴 동양적 은일 세계를 보여 주고 있고, 무엇보다도 서구의 이미지즘과 동양적인 정신의 깊이가 잘 나타남.
- 표현상 특징
  - ①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
  - ② 시인의 심정을 대변하는 작중 인물(노주인)을 관찰하는 관조적 성격을 드러냄
- 출전 : (『문장』 22호, 1941.1)

문 8. <정답> ④

<해설>

제시된 문장에서 주체 높임은 사용되지 않았다. 또한 듣는 청자인 ‘숙희’도 높이지 않고 해체(-다)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대 높임도 실현되지 않았다. 그러나 객체인 ‘선생님’을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 높임은 사용되었으므로 [주체-][상대-][객체+]가 정답이다.

문 9. <정답> ①

<해설>

칸트는 문학 작품은 문학 외적인 측면으로 설명되는 것을 거부하는 순수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내재적 접근 방법에 해당한다. 시 문학에서는 시의 구조적 특징인 시어와 운율을 통하여 감상해야 한다.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.

문 10. <정답> ②

<해설>

- ① 破寂(파적) : 심심함을 잊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함. (심심풀이)
- ② 새우잠 :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자는 잠.  
※안잠 : 여자가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며 그 집의 일을 도와주는 일.
- ③ 亂杖(난장) : 조선 시대에 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마구 매로 치던 고문.(매질)
- ④ 사관 : 양쪽의 팔꿈치와 무릎 관절을 통틀어 이르는 말.

문 11. <정답> ①

<해설>

- ① 率性(솔성) : 거느릴 솔, 성품 성 - 타고난 성질을 좇음.
- ② 善交(선교) : 착할 선, 사귄 교 - 잘 사귀.
- ③ 遵法(준법) : 좇을 준, 법 법 - 법률이나 규칙을 지킴.
- ④ 篤學(독학) : 학문에 충실함.

<변계량 - 내해 조타 하고~>

- 지은이 : 변계량(卞季良 1369~1430) 호는 춘정(春亭). 대제학을 20여 년간 지내는 동안 대부분의 외교 문서를 도맡아 지어 명문장가로 유명했으며 <태조실록(太祖實錄)>을 편찬함
- 연대 : 세종 때
- 갈래 : 평시조
- 성격 : 교훈적, 계세적, 관념적
- 제재 : 의(義)
- 주제 : 義(의)에 따라 천성을 지킴
- 출전 - 진본 청구영언
- 기타 : 유교적 교훈을 담은 교훈가로 관념적 시조이다. 옳고 그름을 잘 가려서 옳은 일이면 어디까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

문 12. <정답> ②

<해설>

- ① 허구한 → 허구한 : 허구하다(형용사 :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.)
- ② 깨닫하다 : 오랫동안 생각해 내지 못하던 일 따위를 어떠한 실마리로 말미암아 깨닫거나 분명히 알다.
- ③ 뒤어내고 → 뒤져내고 : 뒤져내다(동사 : 살살이 뒤져서 들춰내거나 찾아내다.)
- ④ 뉘연히 → 버젓이 : 버젓이(부사 :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굽히는 데가 없이)

문 13. <정답> ④

<해설>

- ① 確執(확집) : 굳을 확, 잡을 집 - 자기의 의견을 굳이 고집하여 양보하지 아니함.
- ② 威儀(위 의) : 위엄 위, 거동 의 - 위엄이 있고 엄숙한 태도나 차림새.
- ③ 強度(강도) : 강할 강, 법도 도 - 센 정도

<오답풀이>

- ④ 日照(일조) : 날 일, 비칠 조 - 햇볕이 내리쬐م.
- 一朝(일조) : 한 일, 아침 조 - 하루 아침

문 14. <정답> ②

<해설>

- ㉠ 흐드러지다 : 형용사 - 매우 탐스럽거나 성하다.
- ㉡ 찍다 : 동사
- ㉢ 설레다 : 동사
- ㉣ 없다 : 형용사

문 15. <정답> ③

<해설>

밑줄 친 부분에 이어지는 문장을 살펴보면 '정상 과학의 시기에는 이미 이론의 핵심 부분들은 정립돼 있다'고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.

문 16. <정답> ③

<해설>

예문의 '잡다'는 '담보로 말다'의 의미이다. 그런데 '어림하다'는 '대강 짐작으로 헤아리다'의 의미이므로 유의어 관계가 아니다.

17. <정답> ②

<해설>

문단의 내용을 보면 '중부는 만조 때에는 물에 잠기지만 간조 때에는 공기 중에 노출되는 곳이다'라는 지점 설명만 있을 뿐 어떠한 생물이 사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.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.

## 문 18. &lt;정답&gt; ①

## &lt;해설&gt;

서론에서 '현재 우리의 수출 실적이 부진한 현상'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, 본론에서 '수출 경쟁력이 부진한 요인'을 제시하고 있다. 따라서 이 글을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①이 주제문으로 적절하다.

## 문 19. &lt;정답&gt; ③

## &lt;해설&gt;

㉠의 '당신'은 앞 문장에서 제시된 ㉡의 '할머니'를 아주 높여 이르는 3인칭 대명사이다.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.

## 문 20. &lt;정답&gt; ③

## &lt;해설&gt;

'그러나'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이다. ㉢은 ㉠과 ㉡의 내용을 부정하고 '사람의 말과 동물의 소리에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'는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.